

## 【지난 주일 말씀】

- 1> 예수님의 비유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?
- 2>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까?
- 3> 참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?
- 4> 감사를 잘 한 여인에게 왜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까?

[본문 읽기] 사도행전 19:21~41 을 읽습니다.

- ▣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, 당연히 세상에서 거부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.  
 왜냐하면, 최악이 가득한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므로 자기들의 더러움이 드러날 까 봐 대항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.  
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.  
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. 이 소동은 <데메드리오>라고 하는 은장색이 일으킨 소동입니다.  
 왜 데메드리오는 소동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 지를 살펴 보겠습니다.

[질문 1] 데메드리오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며 왜 소동을 일으켰습니까?

- 데메드리오의 직업은, <은장색>이었습니다.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질 것 같아서 시기함으로

## &lt;적 용&gt;

나는, 과연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지 생각해 봅시다.  
 내세의 영광인지 혹시 이 땅의 형통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 지 생각해 봅시다.

[질문 2]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?

- 분노가 가득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.

- 1) 32절 - “모인 우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” 라고 했고
- 2) 34절 - “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..” 라고 합니다.

<군중심리>는 정말 위험합니다.

[질문 3] 이 에베소의 소동을 진정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?

- 서기장이 나와서 우리를 진정시키고 지혜롭게 소동을 마무리 합니다.
- 하나님은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을 적절하게 뽑아서 사용하십니다.

## &lt;적 용&gt;

우리도 때로는 무조건 흥분이 되어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 
 그러나 화부터 내지 말고 “가만히 있어..” 자기의 모습부터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먼저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.

## ▣ 맺으면서 ▣

- 복음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.  
 왜냐하면? 복음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.

죄 많은 세상에서는 어디든 문제 없는 곳이 없지만 언제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